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에너지 및 자원분야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기로 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양국 간 에너지·자원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자원의 책임감 있는 개발, 이용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에 대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 지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및 천연자원(셰일가스, 오일샌드) 기술 등 8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2014년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韓加,

에너지기술협력 강화

풍력·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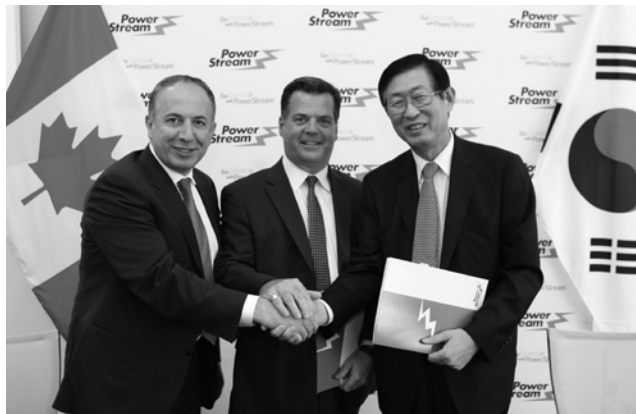
비중 높인다

한전,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최초 해외 수출

한전은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를 방문, 온타리오주 전력회사인 PowerStream社와 북미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공동진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owerStream社는 캐나다 토론토 북부지역과 온타리오주 중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로 북미지역 마이크로그리드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미시장에 진출하는 사업모델은 한전이 그동안 국내 전남 신안, 가사도 등에서 상업운전 실적을 확보해 자체 개발한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기반의 기술 집약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선로 감시 및 상태 추정, 전압 보상 등 선진국 적용형 고급 기능을 추가한 능동 배전망 관리시스템(DM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에 기반한 新사업 모델이다. 新사업 모델은 향후 빅데이터, AMI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2년간 50억 원을 공동 투자해 배전급 능동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실증하고,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세계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달 4일 한전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부 주관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이후 선진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진 전력분야 신산업 첫 사례이자 한전의 첫 번째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해외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 하노이에
중소 홍보관 개소

한전은 지난달 18일 한전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서 중소기업 홍보관 개소식 행사를 갖고,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15개사의 전력량계, 변압기, 개폐기 등 제품에 대한 전시·홍보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해외상설 홍보관 개설은 한전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전력

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품을 상시 전시·소개할 뿐만 아니라 현지 마케팅 전담인력을 운영해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전은 2013년 공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필리핀 마닐라에 중소기업 상설 홍보관을 개설했고, 세 번째로 베트남 하노이에 홍보관을 개설, 연간 8%가 넘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이는 베트남 전력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 석)은 안전보건공단 및 KSR 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체계 국내(KOSHA 18001) 및 국제(OHSAS 18001) 통합 갱신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최초인증을 취득했으며, 이후 매년 사후심사로 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수원 조병옥 품질안전본부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전사적으로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심사위원은 “한수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돼 현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평했다.

**한수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국내외 통합 인증**

경주 방폐장

지진 영향 없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27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8km 지점(북위 35.80, 동경 129.41)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했다.

환경공단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15시 30분 관심경보 발령 및 지진상황 전파에 이어 방폐장 지상지원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구조물 및 설비에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은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리히터 규모 6.5)과 동일하게 설계 시공돼 이번 3.5 규모 지진에는 충분히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

중부발전, 아시안파워

어워드 금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은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4년 Asian Power Awards' 시상식에서 인천복합3호기 이전 건설 과정에서 펼친 전반의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인정받아 'Environmental Upgrade of the Year' Gold Award를 수상했다. Asian Power Award는 아시아 전력분야 전문지인 Asian Power紙가 아시아 각국의 발전소 중에서 발전설비 운영 실적이 가장 우수한 발전소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2년 12월 보령복합 4호기를 인천복합 3호기로 이설, 준공하면서 주변지역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발전설비 성능개선 및 열공급 설비 개조를 통해 종합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온실가스를 감축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KPS, 공기업 최초 3년

연속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전KPS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Basics'와 혁신을 선도하자는 'Lead Innovation',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Improve the Service' 등 BIS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품질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발전설비 정비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한전KPS는 정비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플로차트형 표준 정비절차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서술식 절차서의 단점인 광대한 내용을 프로세스로 바꾸고, 절차 준수 보드판을 활용해 현장 활용도를 혁신적으로 높여 기존 4,000여 건에 이르던 정비절차서를 100종으로 표준화해 정비 효율을 향상시킨 바 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지난달 16일 지자체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호남화력에서 '주파수조정용 ESS 실증설비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참여기관(LG화학, SK이노베이션, 효성, LS산전, 전기



**전력거래소,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 공사 착공**

포스코에너지,
'포스파워' 출범

연구원, 산업기술대학교, 바이텍정보통신, 동서발전, 광성이앤씨 등)과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용 ESS 운영시스템 및 전력시장 제도개발'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ESS의 기술적 검증 및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Frequency Regulation) 시장 개발 등 전력시장에서의 에너지 新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식에 이어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관 연구진들은 ESS 연구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ESS도입에 따른 계통영향 시뮬레이션, ESS 공인인증 평가계획, 해외 ESS 개발사례 등 설비 구축과 실증방안 및 시장 제도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동양파워가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인 '포스파워(POSPOWER)'로 새로 출발한다. 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는 지난달 22일 삼척온천관광호텔에서 황은연 사장, 김양호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회 부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파워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9월 29일 인수대금 4,31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주식 1,180만주(지분 100%)를 취득해 동양파워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사명을 포스파워로 변경했다.

포스파워는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총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권을 취득한 바 있다.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230만㎡의 부지에 1,000MW급 발전기 2기를 2020년, 2021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포스파워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에 EPC사를 선정할 후 착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기산업대전 '성료'

국내 발전, 원자력, 송배전 기자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원자력산업전'이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했다.

올 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의 전력기자재 국제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한전·한수원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발전, 원자력, 송배전, 신재생 및 스마트그리드 등 국내외 첨단 제품 각축장으로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는 한편, 국내 전력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LS산전이 한국전기산업대전에 참가, 배전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질 대용량 고압차단기 신제품인 'Susol VCB(진공차단기) 7.2kV 50kA 5,000A'와 'Susol ACB(기중차단기) 150kA 6,300A'를 최초로 공개했다.

'Susol VCB 7.2kV 50kA 5000A'는 LS산전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대 용량 '인출형' 고압차단기다. 전력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압 배전선로에서 5,000A의 높은 이상전류 사고를 차단, 대용량 차단기 설치가 필수적인 국내외 대규모 사업장, 플랜트 시설에 대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usol ACB 150kA 6,300A'는 국내 최대 단락 용량인 150kA급 고압 차단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KSA 규격 인증을 취득했다. 

LS산전, 세계 최대 용량

고압차단기 '첫 선'